

일상의 과학적 사고 위한 지름길

‘과학저술인협회’ 심포지움서...출판부문 논문발표

지난 6월24일 과학저술인협회(회장 박익수) 주최로 열린 올해 학술심포지움에서는 ‘과학풍토 조성의 저해요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하에 분야별 논문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크게 정책·교육·사회·언론·출판 분야로 나뉘어 발표된 논문 가운데 출판 부문의 손영수씨(전파과학사 회장) 글을 요약해 실는다.

‘과학풍토 조성’이란 말을 흔히 한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과학풍토’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과학과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기 나름의 입장과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바탕이 고루 이뤄질 때 비로소 건전한 과학풍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어린시절부터 과학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 선용할 것이며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때 진정한 의미의 ‘과학풍토’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판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우리가 과학지식을 얻는 데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시간과 장소·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얻고 싶은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이다. 일반인이 과학이 어떤 것이며 일상적 사고와 생활을 과학적으로 이끄느냐 하는 ‘과학의 대중화’ 문제는 아마 책을 통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국내 과학도서의 현주소

현재 우리나라 과학도서출판의 현위치는 어디쯤인가. 최근 20년간의 발행도서 총 종수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중쇄를 포함하지 않는 일본의 신간중수 통계에 비해 중쇄가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의 신간중수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신간도서에서 차지하는 과학도서의 통계도 흥미로운 수치를 나타낸다. 1970년대 이후 20년간 과학도서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최하위의 종수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과학 중 번역서의 비중은 곧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정보에 접하고 있느냐를 암시한다면 수치의 빈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술과학과 순수과학은 신간발행 종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그것의 대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곧 일본이 그만큼 기초과학 분야에 많

은 힘을 쏟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출판물이 얼마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한편 우리나라 과학도서 신간중수의 통계에서 아쉬운 것은 대학교재·전문서적 등과 일반교양서의 비율이 정확치 않다는 점이다. 대략 8:2 내지 7:3의 비율이라 생각되는데 이처럼 과학도서의 현황과악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은 물리·화학·생물 등의 분야별 중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학대중화를 위한 제언

과학출판 분야에서 짚어볼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은 몇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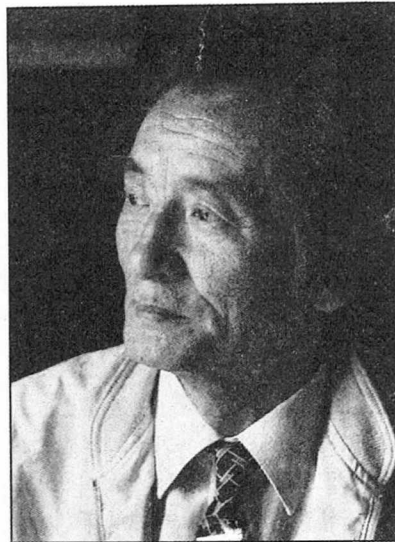
우선 과학도서 출판계가 너무 영세하다는 점이다.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과학도서는 언제나 가장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흔히 그 원인을 ‘독자부재’에 돌린다. 독자가 없으니 책이 안팔리고 그러니까 과학분야는 손대지 않는다는 식이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화되었다. 다만 문학·실용도서류와는 달리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단기간에 판매량이 늘지는 않을 뿐이다.

자본회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긴 안목에서 느긋하게 다져가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큰 출판사들이 과학도서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지원하에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과학도서출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은 유능한 편집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과학물을 다루는 데 필요한 그 분야의 최소한의 정확한 기초지식이 전문직업인으로서 필요한데, 날로 진보하고 새로운 이론과 기술이 창출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안목이 없으면 집필의뢰나 원고교열도 힘들다. 영세한 출판계에 과학기술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편집자로 확보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자문을 받는다는가, 편집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과학기술처 등지에서 출판계를 대상으로 교육·연수과정을 마련하거나 편집인 교육기관 등에서의 특수강좌 신설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과학도서 출판 자체에 대한 체계적 기획의 문제이다. 예컨대 ‘바다’를 소재로 한 책일 경우 취학전 어린이로부터 일반인에 이



손영수씨.

르기까지 대상에 따라 그 내용과 심도를 다르게 단계적으로 출간하는 기획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독자의 성장과정과 지식의 수용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출간하면 독자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출판사서 이미 나온 책과 내용도 엇비슷하게 만들기도 새로운 종류의 책을 창출함으로써 과학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과학지식의 보급에도 긴요할 것이다.

넷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미있고 쉽게 풀어 써줄 필자의 문제이다. 어렵고 딱딱하다는 인상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도서를 친근한 것으로 재미있게 쓸 필자가 많아 독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구적인 전문서적의 집필과는 다소 궤를 달리 할지 모르나 과학대중화의 첫번째로서 이 문제는 중요하게 인식돼야 한다. 일본의 어느 과학자는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편집자는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협조해야 한다. 필자가발을 위한 노력도 함께 따르는 문제일 것이다.

과학기술용어의 신속한 제정과 보완도 필요한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외래용어는 범람하지만, 필자들마다 용어를 각기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아 용어의 통일은 절실한 문제로 남는다.

과학도서의 소개와 서평활동도 활성화돼야 하는데, 일반서적과는 달리 시장성이 협소하기 때문에 광고를 활발히 할 수 없다. 서평에 관심을 쏟는 매체 또한 적은 형편이다. 신문·잡지 등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

우수 과학도서의 선정과 지원도 필요하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대중화를 위한 견지에서 볼 때 학술분야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실질적인 과학풍토 조성운동을 위해 과학도서 발간비의 지원이나 고료와 번역을 위한 저작권사용료의 지원, 도서관·학교 등의 도서구입비 지원 등 과감한 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직장마다 ‘과학문고’의 설치도 필요하다. 모든 직장인이 의도적으로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가 자기의 주체기업에 관련된 과학도서를 만들어 각급학교나 마을문고에 배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한 기업체의 전문가를 필자로 하여 책을 낸다면 과학도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기업이미지업에도 유용하여 출판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과학책 도서모임’ 같은 것을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서 결성하고 ‘학생과학 독후감모집’을 확대한다면 과학적 분위기 형성에 일조가 있을 것이다. 중학교과정에서 과학기술사의 큰 흐름을 교과로 채택하는 다소 엉뚱한 제안도 가능하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리, 공식, 화학식 같은 어떤 성과의 결과만을 주입하기보다 과학의 본질이 무엇이며, 과학기술시대에 ‘인간의 영위로서의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중학교과정서부터 터득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전체로서의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학구적 체계는 아니라도 이야기식 ‘통설’로서의 바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출판제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8000원
전화문의: 732-1431~3